

215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82) 폴리염화비닐을 심으로 한 원피스

□ 폴리염화비닐을 심으로 한 원피스

해설)

- 이 제품은 니트 천에 폴리염화비닐을 샌드위치 모양으로 끼워 만들어진 파트를 패치워크(Patchwork)로서 디자인 된 포크로(Folklore)조의 원피스임. 포크로란 본래 민족의상이지만, 다채로운 액세서리로 장식된 패션이라고 하는 의미로 스팅글이나 비즈, 프린지, 합성피혁, 물 등으로 장식한 패션임. 이 경우에 소재의 복합이 복잡하게 되어 있음.



- 폴리염화비닐(PVC 등으로도 표시)은 드라이클리닝 하면 전병과 같이 딱딱하고 깨지기 쉬워져 금이 가 버리는 소재임.
- 취급표시에서는 「드라이클리닝 가능」이라고 표시되고 있음. 그러나 실제로는 가소제라고 하는 폴리염화비닐을 부드럽게 하는 물질이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용출됨. 폴리염화비닐은 천의 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외관으로는 판단할 수 없음.

- 드라이클리닝에 의해서 폴리염화비닐이 경화되고 일부가 빠져나갔음. 「물세탁 불가」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크릴 84 %, 모 16 %의 니트 소재를 폴리염화비닐에 접착시킨 구조이기 때문에 습식클리닝이 적당한 제품이라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